

##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경사스러운 10월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사회안전군 장병들과 로동적위군, 붉은청년  
근위대 대원들,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  
부대 지휘관, 전투원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왜서인지 류레없이 간고했던 이해에 맞는  
당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10월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모든분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  
로 설레이지만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각지의 수많은 당원동지들과 로동계  
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있다는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안아오고 지키기  
위해 올해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분들이 혹독  
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에 예상치 않게 맞닥든 방역전  
선과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장  
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  
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없이 대할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것을 말아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하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군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전선과 재해복구전선에서 용감히 싸우



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  
협뿐만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돌발적인 위협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자기  
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효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들이 맡은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를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  
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민중적인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  
적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전투적인  
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 마을, 새 집들에  
보급자리를 편 세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

과 기쁨만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  
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비루스  
에 의한 병마와 싸우고있는 전세계 모든이들에  
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두손모아 마음속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  
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모두는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로력적열매들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  
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  
습니다.

간고한 투쟁의 연속이었고 수없이 많은  
적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 당의 75성상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결음  
한결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  
스럽고 땀뻑한 마음으로 뜻깊은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세인이 경탄할 이 화폭자체가 우리를 괴롭  
히고 막아나섰던 온갖 재앙들이 제압되고  
우리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빛나  
게 달성되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번째 생일을 성대  
히 맞이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  
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  
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  
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싶었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몸쓸 전염병으로  
부터 이 나라의 모든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였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지 않을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 2 면 으 로 계 속 )